

봉 축 사

오월은 생명의 달입니다. 생명의 푸른 물결이 온 산하에 번져가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인류의 스승이신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기록하고 경사스런 날입니다. 이 좋은 계절 복된 날, 저는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 승가는 전혀 승가답지 못한 일로 국민 여러분과 사부대중께 큰 상처를 안겨드렸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현안의 본질이 예사롭지 않음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상처가 깊고 크기에 치료 또한 어렵고 오래 걸릴 것입니다. 커다란 인내와 끈질긴 노력으로 승가 구성원들과 함께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이러한 오늘의 자화상은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부처님은 지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혜의 눈으로 세상을 살피셨고, 지혜의 등불로 어둠을 밝히셨습니다. 지혜의 눈에는 내 안에 남이 보이고, 남 안에 내가 보입니다. 하나가 모두요 모두가 곧 하나입니다. 모든 존재는 연기의 그물을 이루는 구슬 하나하나입니다. 이런 세계에 독립된 ‘나’가 있을 수 없고, ‘나의 욕심’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승가가 먼저 부처님의 지혜를 회복해 지니도록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이웃이 부처님의 지혜와 동행할 것을 삼가 간청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서로가 서로를 의지해 살아가는 관계의 동행자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남과 북, 노동자와 사용자, 도시와 농촌, 전통과 현대는 대립과 경쟁의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이웃이요 ‘떨어진 한 몸’으로 평화와 행복의 세계를 향해 더불어 걷고 있는 동반자입니다. 무지와 탐욕은 지혜와 나눔으로, 대립과 갈등은 화해와 공존으로, 차별과 배타는 존중과 상생으로 변화 발전하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부처님은 자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과 연민이 곧 자비입니다. 부처님은

연민과 자애를 마음의 바탕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웃에게 공양하는 일이 부처님께 공양하는 일이고, 모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이 부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이웃에게 헌신하고 기쁨을 주는 일이 곧 자비행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승가가 먼저 부처님의 자비행을 회복해 지니고 힘써 실천하도록 거듭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모든 이웃이 부처님의 자비행에 동참할 것을 호소합니다. 속도와 경쟁을 내려놓고 어깨동무하고 함께 걷는 일이 자비의 구현입니다. 시민의 정당한 참여가 실현되는 민주사회의 회복이 곧 자비의 역사화입니다. 경제적 불균형과 불평등을 극복하여 공정하고 조화로운 공동체를 이룩하는 일이 바로 이웃에게 공양하는 것입니다.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가 배려와 존중을 받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힘쓰는 일이 부처님을 기쁘게 하는 자비행의 실천입니다. 우리가 이런 길을 갈 때 부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리라 믿습니다.

모든 갈등과 대립을 내려놓읍시다. 내려놓고 바라보면 함께 걷는 길이 보입니다. 또 다른 나인 이웃을, 생명을 매일매일 부처님으로 공경합시다. 그러면 매일매일이 부처님 오신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과 평화를 향해 함께 걷고 있는 동행자임을 잊지 맙시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원로대덕 스님들과 내외 귀빈, 사부대중과 국민여러분 모두에게 부처님의 가호가 오월의 햇살처럼 찬란하길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불기2556년 부처님 오신날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